



## 불법한 갈치잡이

은빛 갈치의 찌릿한 손맛을 보려는 강태공들이 지난 2일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공업 앞바다에 몰려들면서 초가를 밤 바다가 불아성을 이루고 있다. 갈치의 입질은 8월 초순 시작돼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관련기사 6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결국 충청 총리...정국 주도 포석

## MB '9·3 개각'...총리에 정운찬씨 대통합 기대했던 '호남 중용' 무산

### 정가 프리즘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충청 출신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진 이번 개각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혀왔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충청 총리'가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다.

◇왜 충청 총리? =충남 공주 출신으로 진보·개혁 성향인 정 총리 후보자 지명은 '통합과 탕평'의 효과를 거두는 한편 지방선거와 대선에 앞두고 충청권 등 중원 공략에 나서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정 총리 후보자의 인선 배경과 관련, "서울대 총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총장 재임시 뛰어난 조직관리 성과를 보여줬다"며 "특유의 친화력과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포용과 화합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 후보자 지명은 이른바 '심대평 파동'으로 불리던 갈 뻥뻥했던 충청 총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지의 지렛대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정국을 확고하게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애초 심대평 카드를 내세워 충청권과의 연대로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해 집권 후반 탄탄한 추동력을 얻겠다는 여권의 '그랜드 디자인'이 정운찬으로 얼굴만 바뀌었을 뿐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특히 비교적 신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정 총리 후보자가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물론 여야 구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 후보자의 운신 결과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새로운 대권 후보군으로 부각될 수 있고, 이같은 기



〈정운찬 국무총리〉

류에 따라 2012년 대선 판도가 조기에 형성될 개연성도 있다.

또, 이번 개각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장관으로 내정, 당정간 활발한 소통 여부도 주목된다. 이로써 정치인 출신 장관은 전제희 보건복지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물건너간 호남 총리 =관심을 모았던 호남 총리 카드는 청와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재 풀 부족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총리 인선을 앞두고 일부 호남 지역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과 함께 총리직 제의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서 호남 인맥의 과감한 중용 등을 통한 국민통합형 내각을 기대했던 지역 민심은 호남 총리 카드가 무산되고 입각도 이뤄진 법무부장관 내정자 1명에 그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법무 이귀남 국방 김태영  
지경 최경환 노동 임태희  
여성 백희영 특임 주호영



〈이귀남 법무〉



〈김태영 국방〉



〈최경환 지경〉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주호영 특임〉

## ‘별관’에 묶인 문화전당 예산

계속된 논란 속 을 842억 중 42억만 써

내년 예산도 700억 중 500억이나 삭감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으로 지원한 막대한 국고가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묶여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전당건립 예산 842억원 가운데 사용액은 고작 42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집행 예산이 1천억원대에 달하면서 내년 예산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0년 예산 1차 심의에서 광주시와 추진단이 요구한 문화전당 건립 예산 7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당 건립 공사 차질로 불용액(예산 미사용으로 정부에 반납한 금액)과 이월액(예산집행 차질로 다음해로 넘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해도 쓰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문화전당 건립예산은 지난해 536억원이 불용됐으며 올해도 공사장기 차질로 382억원 가량을 쓰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월액도 272억원에 달한다.

추진단은 올해 문화전당의 건립비 842억원 가운데 8월 현재 겨우 48억

원만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도청 별관 논란으로 공정률이 10%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옛 도청별관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주변터파기 공사, 지하 굴착을 위한 옹벽구축 작업 등 기본 작업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 지식문화원 건립 등 5대 핵심 공정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고확보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결국 옛 도청 별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전당 건립예산은 물론 사업 항배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신종플루’에 막힌 대형 행사

광엑스포 연기·김치문화축제 취소

이달 개막 디자인비엔날레도 축소

신종플루 확산으로 광주·전남지역 축제 등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나 연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광주시 3대 축제인 세계광엑스포(10월 9일~11월5일)와 김치문화축제(10월 23일~11월1일)를 일단 취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3대 축제 중 하나인 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8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행사기간(48일)을 절반으로 축소해 치르기로 했다. 김치축제는 매년 열리기 때문에 올 행사가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박광대 광주시장이 이날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다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 남구는 효사광녹색문화산업전(9월23~27일)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동구는 금평간 총장축제준비위원회를 열어 총장축제(동구)의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와 광산구도 각각 국화축제, 어등축제의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18일~2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광주평생학습축제를 무기연기했다.

전남도교육청도 4일~6일까지 여수진남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회 전남평생학습축제를 무기연기했다.

신안군은 12일~13일 이틀간 신안 흑산도에서 열기로 했던 '제3회 흑산 홍어축제'를 취소했다. 또한, 이달 21일~25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될 전국

장애인축제도 단계별 경기 축소 등과 관련해 대한 장애인체육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양 전어축제를 비롯한 ▲명랑대첩 축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순천만 갈대 축제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보성 소리 축제 등 향후 개최 예정인 전남 지역 12개 축제의 취소·연기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